

# 방글라데시 최빈개도국(LDC) 졸업 유예 추진 배경과 시사점

윤지현 세계지역연구2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chyun@kiep.go.kr, 044-414-1327)



## 차 례

1. LDC 졸업 유예 추진 현황
2. LDC 졸업 준비 실태
3. 주요 산업별 영향: 의류(RMG), 제약, IT/ITES
4. 전망 및 시사점

## 주요 내용

- ▶ 방글라데시는 2026년 11월 최빈개도국(LDC) 지위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 금융, 기술 분야의 국제 특혜가 단계적으로 종료될 예정임.
  - 무관세·무쿼터(DFQF), TRIPS 유예, 수출보조금 허용 등 핵심 지원조치 축소가 불가피함.
  - 전체 수출의 약 73%가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며 의류가 수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구조로, 졸업에 따른 충격이 특정 산업을 넘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 특혜 상실은 단순한 관세 인상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경쟁 심화를 동반하여 산업 경쟁력 재편이 요구되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함.
- ▶ 방글라데시는 WTO 전환 유예(12년간) 및 UN 졸업 연기(3년간)를 병행 추진 중이나, 협상 성과가 제한적이며 유예 확보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임.
  - WTO MC14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핵심 쟁점은 후속 협상으로 이월되었으며, UN 졸업 연기에 대한 최종 결정은 2026년 9월 UN 총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임.
  - 방글라데시 정부는 「원활한 전환 전략(STS)」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 수출 다변화, 생산성 제고 등을 추진 중이나, 정치적 불안정과 정책 집행력 부족으로 성과는 제한적임.
- ▶ 산업별 영향은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관세 상승, 제도 변화, 글로벌 기준 강화에 따른 복합적인 충격이 예상됨.
  - [의류] 관세 부과, 원산지 규정 강화, 수출보조금 금지 등으로 가격 경쟁력 약화 및 시장 점유율 하락 우려
  - [제약] TRIPS 유예 종료로 특허권료 부담이 발생하면서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예상
  - [IT/ITES]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나 고숙련 인력 부족, 디지털 인프라 제약 등 내부 요인이 주요 과제
  - [기타] 제조업, 농수산업, 서비스업 전반에서 비관세 장벽 대응 필요성 확대
- ▶ 향후 방글라데시는 졸업 유예 협상과 함께 산업 구조 고도화를 병행 추진할 전망이며,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EPA 및 ODA를 활용해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방글라데시는 EU GSP+ 확보, FTA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시장 접근성 유지와 수출 경쟁력 방어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
  - 한국은 △ EPA 협상을 통한 관세 혜택 및 투자 보호 제도화, △ 제조업, ICT, 친환경 산업 등 고부가가치 분야 협력 확대, △ ODA 및 KSP를 활용한 제도 구축 및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추진할 필요

## 1. LDC 졸업 유예 추진 현황

■ 방글라데시는 2026년 11월 24일 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ed Countries) 지위에서 공식 졸업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국제 특혜의 단계적 종료를 앞두고 있음.

- 방글라데시는 1975년 독립 직후 LDC로 지정되었으며, 2021년 11월 24일 제76차 UN 총회에서 UN 개발정책위원회(CDP: Committee for Development Policy)의 권고 승인으로 졸업 계획이 확정됨.<sup>1)2)</sup>
- 그동안 방글라데시는 LDC 지위를 기반으로 무역, 금융, 기술지원 분야에서 국제 특혜를 활용해 왔으며,<sup>3)</sup> 특히 무역 특혜를 중심으로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지속해 왔음.
  - [무역 특혜] 주요 선진국 시장 수출 시 무관세·무쿼터(DFQF)<sup>4)</sup> 적용, 완화된 원산지 기준(RoO) 활용
  - [WTO 특별·차등 대우(S&DT)<sup>5)</sup>] 수출보조금 허용,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sup>6)</sup> 의무 유예, 분쟁 해결 절차상 지원(법률 자문, 교육 지원, 분쟁 시 유연한 조항 적용)
  - [기타] 양허성 개발금융, 서비스 웨이버<sup>7)</sup>, 무역 관련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 LDC 지위 졸업은 이러한 특혜의 단계적 종료를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지위 변화를 넘어 수출 경쟁 환경의 구조적 전환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이어지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됨.
  - 특히 방글라데시는 전체 수출의 약 73%가 LDC 특혜 관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의약품 분야에서도 특허 보호 의무를 면제받는 등 LDC 지원조치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 방글라데시 과도정부<sup>8)</sup>는 제14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LDC 졸업 충격 완화를 위한 ‘12년간의 구속력 있는 전환기간(Binding 12-year Transition)’을 공식 요구함.

- 2026년 3월 26~29일 개최된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The 14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제출 의견서(Position Paper)를 통해, 방글라데시는 졸업 이후 예상되는 통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12년간의 유예 조치를 제안함.
  - △ DFQF 지위 12년 유지, △ 원산지 규정 단일 변형 허용, △ 의약품 TRIPS 유예 2034년까지 연장, △ S&DT 12년 연장 등을 포함(부록 표 1 참고)

1) LDC 선정과 졸업 여부는 UN CDP가 3년마다 실시하는 심사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CDP의 권고는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를 거쳐 UN 총회에서 최종 확정됨. LDC 혜택은 UN의 LDC 명단을 기준으로 크게 △ 무역, △ 개발협력, △ 국제포럼 참여 지원 등 세 영역에서 제공됨. ① [무역 - WTO] 무관세·무쿼터(DFQF) 시장 접근, 원산지 규정 완화, WTO 이행 유연성, 서비스 특혜, 무역원조·기술지원 우선 ② [개발협력] ODA, 양·다자 재정지원, 기술협력, 교육·연구 지원 ③ [국제포럼 참여 지원] 분담금 감면, 예비 지원, 협상 역량강화(UN(May 2024), Handbook on the Least Developed Country Category: Inclusion, Graduation and Special Support Measures).

2) 방글라데시의 졸업 결정 기준은 [부록]의 [글상자 1] 참고.

3) LDC 전용 국제지원조치(LDC-ISMs: LDC-specific international support measures).

4) Duty-Free Quota-Free.

5)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6) WTO 체제 아래 지식재산권 보호 기준을 설정하는 국제 협정.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7) LDC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가 선진국 서비스 시장 접근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특별 우대 조치.

8) 방글라데시는 2024년 8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 정권이 전복된 이래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가 수반으로 과도정부를 이끌었으며, 2026년 2월 17일 타리크 라흐만(Tarique Rahman)이 이끄는 신정부가 출범함.

- 이러한 요구는 LDC 졸업을 통한 국가적 위상 격상이라는 명분과 졸업 충격(graduation shock)으로부터 수출 기반을 보호해야 하는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함임.
  - o 특히 △ 특혜관세 혜택 상실, △ 의약품 TRIPS 유예 종료, △ 수출 보조금 철회 등은 수출 경쟁력 약화와 함께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민간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
- 다만 MC14에서 해당 요구는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향후 협상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paths forward)에 그쳤으며, 관련 논의가 제네바 후속 협상으로 이월됨에 따라 WTO 차원의 졸업 유예 확보가 불투명해짐.<sup>9)</sup>

**■ 방글라데시 신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6년 2월 18일 UN CDP에 LDC 졸업 시점을 2029년 11월까지 3년 연기할 것을 공식 요청함.**

- 방글라데시 대외경제협력청(ERD: Economic Relations Division)은 대내외 복합 위기로 인해 졸업 준비 여건이 '예외적으로 도전적인(exceptionally challenging) 상황'임을 강조하며 졸업 연기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제출함.
- 정부는 팬데믹 및 러·우 전쟁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 2024년 정권 교체 이후의 거시경제 불안정 등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단기 안정화에 집중되었고, 그 결과 구조개혁 과제가 지연되었음을 강조함.
  - o UN-OHRLLS<sup>10)</sup>의 독립적 준비도 평가(IRA: Independent Readiness Assessment)<sup>11)</sup> 결과, 방글라데시의 졸업 준비에 상당한 차질이 확인되었으며, 현시점의 졸업이 '개발 진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UN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졸업 연기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sup>12)</sup>
- EU GSP+<sup>13)</sup> 확보의 불확실성,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 등 졸업 이후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준비기간 연장을 통해 정책적 대응 여력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함.<sup>14)</sup>
- UN CDP는 정부 요청을 검토 중이며, 졸업 연기 여부는 2026년 9월 UN 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임.

**■ 본 원고는 방글라데시가 LDC 졸업 유예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졸업 후 예상되는 의류(RMG), 제약, IT/ITES 등 주요 산업별 영향을 검토하여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9) WTO 보도자료(2026. 3. 20.), "MC14 concludes with adopted decisions, progress on key outstanding issues"(검색일: 2026. 3. 31.);

EIN News(2026. 3. 30.), "MC14 concludes with adopted decisions, progress on key outstanding issues"(검색일: 2026. 3. 30.).

10) UN 최빈개도국·내륙개도국·소도서개도국 고위대표사무소. Office of the UN High Representative for the LDCs,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11) 2025년 9월 방글라데시의 공식 요청으로 수행. SANEM(2025. 10.), "Navigating Uncertainty: Bangladesh's LDC Graduation, Deferral Debate, and the Future of Reform," p. 2.

12) The Financial Express (Feb 21, 2026), Bangladesh formally seeks three-year deferral of LDC graduation (검색일: 2026.3.4.)

13) EU는 현재 표준 GSP(Standard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GSP+, EBA 등 세 가지 관세 우대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1) 표준 GSP: 개발도상국 대상 기본 관세우대(11개국), 2) GSP+: 취약 개발도상국 대상 강화형, 관세 감면 확대(8개국), 3) EBA: LDC 전용 DFQF 적용(47개국). 검색일 2026.2.23. 기준. <https://gsphub.eu/country-info>,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generalised-scheme-preferences-gsp>.

14) Prothom Alo(2026. 2. 21.), LDC graduation: Govt seeks 3-year deferral(검색일: 2026. 2. 24.).

## 2. LDC 졸업 준비 실태

- 방글라데시 정부는 LDC 졸업에 대비해 거시경제 안정 기반을 구축하고, 수출 다변화 및 생산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를 위해 일찍이 국가 전략 수립에 착수함.
- 방글라데시는 졸업 이후 예상되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원활한 전환 전략(STS: Smooth Transition Strategy)」을 수립 및 이행 중임.
- STS는 국제적 지원 축소에 대응하여 졸업 이후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대응 방향과 중장기 경제 구조 전환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전략임.<sup>15)</sup>
- 방글라데시 경제는 특정 산업과 무역 특혜에 의존하는 저숙련·저임금 중심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유하고 있어, 졸업 이후 자립적인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됨.
- STS는 △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 △ 무역 특혜 및 전환 지원, △ 수출 다변화 및 경쟁력 강화, △ 생산 역량 강화, △ 국제협력 및 회복력 강화 등 5대 축을 핵심으로 함.
  - 총 157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며, 중장기 경제 전환을 위한 30개의 최우선 실행 과제를 포함
  - 특히 12개 수출 유망 산업<sup>16)</sup>을 지정하여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고, 생산성 향상과 국제 표준(품질, ESG 등) 준수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함.

표 1. 방글라데시 STS의 주요 내용

구분	전략적 목표	핵심과제
Pillar 1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	LDC 졸업 이후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안정적 거시경제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기반 환율 체제로 전환 및 외환보유액 관리 강화</li> <li>•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규제 개선, 금융 접근성 확대)</li> <li>• 공공부채 지속가능성 확보(부채 관리, 세수 확대) 및 외환 유입 확대(FDI·개발금융·송금)</li> </ul>
Pillar 2 무역 특혜 및 전환 지원	LDC 특혜 상실에 따른 시장 접근 충격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GSP+ 제도 확보 및 양자·지역 무역협정 추진</li> <li>• WTO 협상 역량 강화(전문인력 양성, 국제 통상 규범 대응)</li> <li>• 무역 촉진 정책 확대 및 LDC 특혜 의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li> </ul>
Pillar 3 수출 다변화 및 경쟁력 강화	의류 중심의 수출구조 탈피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非)의류 산업 육성 및 수출 품목 다변화</li> <li>• 물류 인프라 개선 및 국제 품질 기준(ESG 포함) 인증 강화</li> <li>•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 확대 지원</li> </ul>
Pillar 4 생산 역량 강화	저임금·노동집약 구조에서 기술·생산성 기반 경제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혁신(R&amp;D 투자, 기술이전) 촉진 및 산업 디지털화 확대</li> <li>• 인적자본 개발(직업훈련·기술교육) 및 MSME 수출 참여 확대</li> <li>• 투자 환경 개선 및 FDI 유치 확대</li> </ul>
Pillar 5 국제협력 및 회복력 강화	졸업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 파트너 협력 강화(기술·재정 지원, 정책 자문)</li> <li>• 남남 협력 및 다자 협력 네트워크 강화</li> <li>• 기후·재난 대응 협력 강화</li> </ul>

자료: 방글라데시 대외경제협력청(ERD), Bangladesh Smooth Transition Strategy(STS) 바탕으로 저자 정리.

15) UN 권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수립된 동 전략은 재무부 대외경제협력청(ERD)이 총괄하며, 수석고문(chief adviser)이 이끄는 국가운영위원회와 기술위원회를 설치하여 STS 이행을 촉진하고 있음. 방글라데시 정부는 총리실 수석비서관이 이끄는 LDC 졸업위원회(NCG: National Committee on LDC Graduation)의 총괄 아래 7개 소위원회를 설치했으며, 과도정부기에 국가운영위원회(National Steering Committee, 수석고문 총괄)와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수석고문 특별보좌관 총괄)를 추가로 설치해 STS 이행을 촉진함(SANEM(Oct 2025), 'Navigating Uncertainty: Bangladesh's LDC Graduation, Deferral Debate, and the Future of Reform, p.2).

16) △ 의류(RMG), △ 제약·원료의약품(API), △ 가죽·가죽 제품, △ 비(非)가죽 신발류, △ 경공업(전자·전기 부품 포함), △ 조선업, △ 플라스틱 제품, △ 농산물·가공식품, △ 수산업·축산업, △ 관광, △ 소프트웨어·IT 서비스, △ 간호·조선 서비스.

■ 방글라데시는 5년의 준비기간 동안 LDC 졸업을 준비해 왔으나,<sup>17)</sup> 내부 실행력 부족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성과는 제한적이었음.

- 코로나19 팬데믹 충격 및 2024년 정권 교체 전후의 정치적 혼란으로 거시경제가 불안해졌으며, 연차개발 예산(ADP: Annual Development Programme) 집행 부진 등으로 구조개혁 추진력이 약화됨.
  - UN-OHRLLS는 정치적 불안정과 거버넌스 혼란이 정책 연속성을 저해하고 기관 간 협력을 약화시켜 방글라데시의 주요 개혁 과정들이 지연 또는 무산되었다고 평가
  - 특히 지난 5년의 졸업 준비기간이 전략적 전환이 아닌 위기관리와 정치적 대응에 소모된 것으로 분석<sup>18)</sup>
  - 2024/25년 ADP 집행률은 67.85%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sup>19)</sup> 2025년 6월 IMF 부채 지속가능성 분석(DSA: Debt Sustainability Analysis)에서 국가 위험등급이 ‘낮음(Low)’에서 ‘보통(Moderate)’으로 상향되며 재정 여력이 크게 축소<sup>20)</sup>
  - 에너지·물류 인프라 개선과 산업 다각화 전략은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sup>21)</sup>
- 현재 방글라데시는 성장 둔화, 물가 상승, 고용 감소, 금융 불안, 공공부채 증가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IMF 구제금융 체제하에서 강도 높은 거시경제 구조개혁을 추진 중임.<sup>22)</sup>
  - 부실채권(NPL)이 25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하면서 민간 신용이 위축되었고,<sup>23)</sup> 대외부채는 2020~24년 사이 42% 증가하며 상환 부담이 크게 확대<sup>24)</sup>
  - 세계은행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에서 2023~24년 사이 약 2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으며, 2022~25년 사이 약 900만 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추정<sup>25)</sup>

■ 방글라데시는 WTO 차원의 완충 조치 확보와 주요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대응해 왔으나, 협상 역량 부족과 외부 환경 제약으로 성과는 제한적임.

- LDC 졸업 결정 이후 WTO 차원에서 ‘원활한 이행(Smooth Transition)’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① MC12(2022. 6.): ‘원활한 이행’ 원칙에 대한 정치적 합의 도출

17) UNGA 규칙에 따라 CDP 추천 → ECOSOC 승인 → UNGA 최종 결정 시 LDC 졸업대상국은 최소 3년의 준비기간이 자동 부여되며, 방글라데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으로 예외적으로 5년이 부여됨.

18) The Daily Star(2025. 2. 20.), “‘Substantial gaps’ found in LDC readiness”(검색일: 2026. 3. 6.).

19) 집행률 변화: 82.11%(FY21) → 92.74%(FY22) → 85.17%(FY23) → 80.63%(FY24) → 65.85%(FY325); 개발 프로젝트와 인프라 투자에 할당되는 예산. The Business Standard(2025. 7. 23.), “ADP implementation falls to historic low at 67.85% in FY25”(검색일: 2026. 3. 6.). 회계 연도는 7월부터 이듬해 6월 기준.

20) IMF eLibrary(2025. 6. 26.), <https://www.elibrary.imf.org/view/journals/002/2025/150/article-A002-en.xml>(검색일: 2026. 3. 9.).

21) The Daily Star(2025. 2. 20.), “‘Substantial gaps’ found in LDC readiness”(검색일: 2026. 3. 6.).

22) 자세한 내용은 김민희(2026), 「방글라데시 구제금융 패키지과 구조 개혁 현황」, KIEP 세계경제 포커스 9-12 참고.

23) The Financial Express(2025. 12. 14.), “NPL surge triggers systemic banking shock”(검색일: 2026. 3. 9.).

24) 세계은행, International Debt Report 2025에 따르면, 대외부채가 수출 수입의 192%에 이르며, 수출의 16%가 부채 상환에 사용되고 있음. 대외부채 \$735.5억(2020) → \$1,044.8억(2024), 연간 상환액 \$37.3억(2020) → \$73.5억(2024). CDP(2025. 12. 14.), “Our entire revenue intake is consumed by revenue expenditure - Mustafizur Rahman”(검색일: 2026. 3. 9.).

25) 빈곤율이 18.7%(2022)에서 21.2%(2025)로 상승. The Daily Star(2025. 2. 20.), “Substantial gaps’ found in LDC readiness”(검색일: 2026. 3. 6.); The Business Standard(2025. 11. 25.), “Nearly 20 lakh jobs in 2023-24 in Bangladesh, another 9 lakh decline expected by this year: WB”(검색일: 2026. 3. 9.).

- ② MC13(2024. 2.): 졸업 후 3년간 관세 특혜 연장 권고 합의(EU, 영국, 캐나다는 2029년까지 3년 연장에 동의)
- ③ MC14(2026. 3.): 주요 쟁점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하며 추가 성과 없이 후속 협상으로 이월

- 특혜 종료 후 관세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무역 협상을 추진했으나, 국가별 성과 편차가 존재함.

- [일본] GSP 3년 연장과 함께 약 7,400개 품목의 관세 철폐를 포함한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 체결(2025. 12.)<sup>26)</sup>
- [미국] 상호무역협정(Agreement on Reciprocal Trade) 타결(2026. 2.)을 통해 대미 관세 인하(20% → 19%) 및 미국산 면화·합성섬유 사용 의류에 대한 무관세 적용에 합의<sup>27)</sup>
- 반면 한국,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등과의 협상은 가시적인 진전이 없으며, 특히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EU와의 협상 부진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종합적으로 전략과 실행 사이의 간극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LDC 졸업 유예 확보가 국가 차원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함.

### 3. 주요 산업별 영향: 의류(RMG), 제약, IT/ITES

■ 방글라데시의 수출 구조는 LDC 특혜관세 및 국제지원조치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졸업 시 의류(RMG)를 포함한 주요 수출 품목 전반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전체 상품 수출의 약 73%가 LDC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여타 LDC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임.<sup>28)</sup>
- 이에 따라 LDC 졸업은 의류뿐 아니라 가죽·신발, 수산물(냉동 어류·새우), 황마 제품 등 기존에 관세 혜택에 크게 의존해 온 주요 수출 품목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WTO는 관세 영향만을 고려할 경우, 무역 특혜 상실로 방글라데시 수출이 최소 14% 감소할 것으로 예측<sup>29)</sup>
- UN DESA(2020)는 의류와 제약 산업을 핵심 취약 부문으로 지목했으며, UNCTAD(2021)는 의류 중심의 수출 구조를 방글라데시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분석함.
  - 의류 산업은 주요 수출시장에서 관세 인상에 직면하게 되며, 제약 산업은 TRIPS 규정 준수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sup>30)</sup>
  - 전체 수출의 약 80%가 의류에 집중되어 있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도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수출하는 후방 참여(backward participation)에 편중된 구조적 한계가 존재<sup>31)</sup>

26) BDD News(2025. 11. 11.), "Bangladesh Gets Tax-Free Access to Japanese Market for 3 Years After Graduation"(검색일: 2026. 2. 25.); BBS News(2025. 12. 22.), "Bangladesh, Japan conclude EPA negotiations"(검색일: 2026. 2. 25.).

27) Aljazeera(2026. 2. 9.), "US and Bangladesh set trade deal with tariffs at 19 percent"(검색일: 2026. 2.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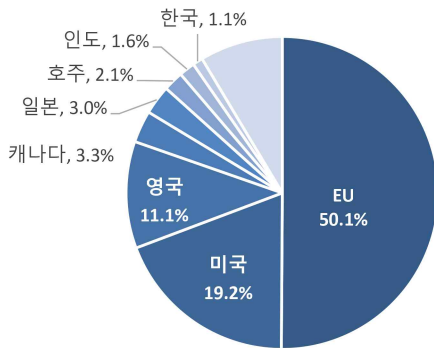
28) Bangladesh STS(2025. 2.), p.,xvi, p. 25.

29) Bangladesh STS(2025. 2.), p.xvi.

30) UN DESA(2020. 3. 3.), "Ex-ante assessment of the impacts of the graduation of Bangladesh from the category of LDCs. Revised," p. i.

- [의류(RMG)] 방글라데시의 핵심 산업인 의류 부문은 그간 △ 무관세·무쿼터(DFQF), △ 완화된 원산지 규정, △ 수출보조금 등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왔으나, 졸업 이후 이러한 혜택이 축소될 예정임.
- 방글라데시는 원자재를 수입해 노동집약적 제조 공정을 거쳐 수출하는 다운스트림 생산기지로서, 세계 시장 점유율 약 10%를 차지하는 세계 2위의 의류 수출국임.
- 독립 이후 투자 자유화, 정책적 지원, 저임금 노동력, LDC 특혜를 기반으로 EU(전체 수출의 약 50%)와 북미(약 20%)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옴.
  - LDC 지위를 통해 EU,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인도, 중국 등 52개국으로부터 무관세 혜택<sup>32)</sup>

그림 1. 국가별 의류 수출 현황



주: HS 61 & 62, 2024.7월~2025.6월 기준.  
자료: 방글라데시 Export Promotion Bureau(검색일: 2026. 3. 30.) 바탕으로 저자 계산.

표 2. LDC 졸업 후 관세율(의류)

(단위: %)

국가	졸업 후 적용 특혜	HS 61 편물제 의류	HS 62 비편물제 의류
EU	표준 GSP	9.3	9.1
	GSP+	0.0	0.0
영국	EP	0.0	0.0
캐나다	GPT	16.5	15.1
일본	GSP	8.2	8.8
인도	SAFTA	15.8	19.4
중국	APTA	4.7	5.1

주: (EP) Enhanced Preference, (GPT) General Preferential Tariff, (SAFTA) South Asian Free trade Area, (APTA) Asia Pacific Trade Agreement.

자료: Bangladesh STS(2025. 2.), pp. 18-20, p. 26.

- [DFQF 혜택 종료] 졸업 이후 주요 선진국 시장에서 무관세 혜택<sup>33)</sup>이 종료됨에 따라 관세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 EU EBA 종료 후 표준 GSP 체제로 전환될 경우, 2029년부터 평균 9% 내외의 관세 부과 예상
  -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경쟁국의 대EU FTA 체결 상황을 고려할 때 방글라데시의 가격 경쟁력 약화는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직결<sup>34)</sup>
- [원산지 규정 강화] LDC에 적용되던 완화된 원산지 기준이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전환됨.
  - 기존에는 수입 원단을 활용해 봉제 공정만 수행해도 원산지가 인정되는 단일공정(single-stage)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졸업 후에는 원단 생산부터 봉제까지 요구되는 이중공정(double-stage) 기준 적용
  - 이에 따라 원사-원단-봉제 간 수직 계열화가 미흡한 기업은 수출 경쟁력 상실 위기에 직면

31) UNCTAD(2021), "A synthesis of the Vulnerability Profile: Bangladesh," p. 6.

32) BFTI(2023. 5.), "Identification of Trade-related Graduation Challenges and Preparation of Sector-specific Trade Roadmaps for Overcoming the Challenges," pp. 13-14.

33) WTO 차원의 선진국 DFQF 이니셔티브에 따라 EU 외에도 캐나다(LDCT), 일본(GSP for LDC), 영국(Comprehensive Preference) 등 주요 선진국과 한국(GSP for LDC), 중국(Duty-free treatment for LDC), 인도(SAFTA LDC)에서 유사한 특혜관세 적용. 미국은 2013년 방글라데시의 노동권 및 공장 안전 기준 미달을 이유로 GSP 적용을 중단함.

34) 베트남-EU FTA는 2020년 8월 발효(대부분 무관세 적용). 인도-EU FTA는 2026년 1월 체결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2026년 내 서명, 비준 및 발효를 목표로 EU와 FTA 협상을 추진 중.

- [수출보조금 금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SCM)<sup>35)</sup>에 따라 LDC에 허용되던 수출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종료됨.

표 3. 방글라데시 의류(RMG) 산업 영향

구분	LDC 혜택	LDC 종료 후(기본 특혜)
관세	• 무관세·무쿼터(DFQF)	• Standard GSP(EU), GPT(캐나다), Enhanced Preference(영국), GSP(일본) 등 국가별 기본 특혜 또는 MFN 관세 적용
원산지 규정	• 단일공정(EU, 영국 등) • 최소 부가가치(VA) 25~40% 충족	• 이중공정 적용 • 최소 부가가치(VA) 40~60% 충족
수출보조금	• WTO 규범 내 허용	• 원칙적 금지

자료: Bangladesh STS(2025. 2.), pp. 19-20 등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제약] 방글라데시는 TRIPS 유예를 활용해 제네릭 의약품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 왔으나, 졸업 이후 제도적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방글라데시는 최빈국 중 유일하게 의약품 생산 설비를 갖춘 국가로, 의약품 특허 면제 혜택과 낮은 생산비용을 기반으로 약 150개국에 제네릭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음.
- [TRIPS 유예 종료] 졸업 이후 특허권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생산비 상승과 가격 경쟁력 약화가 예상됨.<sup>36)</sup>
  -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저하뿐 아니라 공공보건 비용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음.
  - 제네릭 의약품 생산을 위한 품목 등록 지연 등 행정 역량의 한계도 병존<sup>37)</sup>
- [수출보조금 폐지] WTO 보조금 협정(SCM) 준수에 따라 수출보조금 지급이 불허되며, 이에 따라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API) 수출액이 6% 내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sup>38)</sup>
- [특허 행정 체계 구축] 체계적인 특허 출원 및 심사 체계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행정 비용 발생이 불가피
- 다만, 의류 산업과 달리 의약품은 관세율이 매우 낮아 관세 혜택 상실에 따른 직접적인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sup>39)</sup>

35)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36) 다만, TRIPS 협정 제66.1조가 명시한 'LDC의 특별한 요구(special needs)가 졸업 후에도 지속된다'는 논거에 따라, 졸업 여부와 무관하게 2033년까지의 유예기간(Full Transition Period)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국제적 쟁점이 존재함. UN CDP(2020. 8.), "The needs to extend the WTO TRIPS pharmaceuticals transition period for LDCs in the COVID-19 era: Evidence from Bangladesh," p. 8.

37) 방글라데시 의약품관리국(DGDA)이 로컬기업의 제네릭 생산권 확보를 위해 품질 등록을 추진 중이나, 행정 역량의 한계로 천여 건의 등록 신청이 계류 중(2025년 8월 기준). The Business Standard(2025. 8. 31.), "1,000 drug registrations stuck as Bangladesh risks losing TRIPS waiver"(검색일: 2026. 3. 11.).

38) 다만 현지 제조 의약품 중 타국이 특허를 보유한 약품의 비중이 10~20% 수준으로, 즉각적인 대규모 혼란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Bangladesh STS(2025. 2.), p. 32.

39) *Ibid.*, p. 32.

표 4. 방글라데시 제약 산업 영향

구분	LDC 혜택	LDC 종료 후
제약 특허 보호	• 제품 및 생산 공정 특허 보호 의무 면제	• 특허 보호 의무 도입
제네릭 의약품 생산·수출	• 로열티 지급 없이 생산 및 수출 가능	• 특허권료 지불 의무 발생
특허 행정 제도	• 특허 심사 및 EMR 부여 의무 유예	• 전문 심사 체계 구축 필수
수출 지원	• WTO 허용 범위 내 현금 인센티브 제공	• WTO SCM 협정에 따른 보조금 중단

자료: Bangladesh STS (Feb 2025), pp.30-32 등 참고하여 저자 작성.

■ [IT/ITES] 방글라데시 경제 구조 전환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으나, 제도 변화보다는 내부 역량 제약이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정부는 IT를 수출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함.
  - 방글라데시는 온라인 프리랜서 공급 분야에서 세계 2위 수준의 인력을 보유<sup>40)</sup>
- TRIPS 준수에 따라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가 확대되면서 기업 및 교육기관의 비용 부담 증가가 예상됨.
  - 유료 라이선스 전환에 따라 IT 소기업, 학생 및 연구자들의 소프트웨어와 연구자료 접근성 제한 우려
- 다만 기존에 서비스 웨이버 및 보조금 활용도가 낮았던 점을 고려할 때, 제도 변화로 인한 직접적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sup>41)</sup>
- 향후 산업 경쟁력은 숙련 인력 부족, 낮은 R&D 투자, 인프라 제약 등 내부 요인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큼.
  - 인터넷 비용이 글로벌 평균 대비 약 7배 수준이며, 광대역 속도는 세계 101위 수준<sup>42)</sup>

■ [기타 산업] 경공업, 1차 산업, 서비스업 등 전반에서 관세 인상, 보조금 축소, 비관세 장벽 강화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됨.

- [제조업] 가죽, 신발, 플라스틱, 전자 부품 등은 의류와 유사하게 관세 상승 및 원산지 규정 강화에 따른 영향이 예상됨.
- [1차 산업] 농·수산업은 보조금 규제 강화와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 장벽 강화에 직면할 예정임.
  - 수산업은 보조금 규율 강화로 약 2,000만 명 규모의 어업 종사자에게 위협으로 작용<sup>43)</sup>
  - 농·축산업은 관세 상승과 보조금(유류비 지원 및 현금 보조) 금지의 이중 부담 예상
  - 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 식품 안전 표준 강화 등 선진국 수준의 엄격한 검역 체계 대응이 산업 존속을 위한 필수 과제로 부상
- [기타] 조선, 관광, 간호 등은 국제 기준 준수와 내부 역량 강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예정임.

40) Bangladesh STS(2025. 2.), p. 79. 현재 100만 명 이상의 프리랜서가 활동 중이며, 연간 약 1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BFTI, p. 107).

41) Bangladesh STS(2025. 2.), p. 30.

42) Bangladesh STS(2025. 2.), pp. 80-81.

43) The Financial Express(2026. 1. 31.), Bangladesh to seek 12-yr trade grace for post-graduation era(검색일: 2026. 2. 11.).

- 조선업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환경 및 노동 기준 준수 요구가 강화될 전망
- 관광 및 보건서비스는 인력 양성, 자격 인증 체계, 인프라 개선이 핵심 과제로 작용

## 4. 전망 및 시사점

■ 방글라데시의 ‘저임금·특혜 기반 의류 수출’ 성장 모델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는 LDC 졸업에 따른 충격과 맞물려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향후 방글라데시 정부는 졸업 유예 협상과 산업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병행할 것으로 전망됨.

-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6년 9월 UN 총회에서 3년 졸업 연기(2029년) 승인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EU GSP+ 확보와 FTA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수출 특혜를 유지 및 확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졸업 유예가 성사되더라도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적응 기간’ 확보에 불과하므로, 산업 전반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 전환과 체질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라흐만 신정부는 졸업 연장을 요청하는 동시에 거시경제 안정화와 STS 핵심 정책 과제 이행을 강조하고 있어,<sup>44)</sup> STS는 향후에도 졸업 대응의 핵심 로드맵으로 기능할 전망
  - 산업별로는 △ 의류 산업의 공정 자동화 및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 △ 제약 산업의 신약 개발 및 원료의약품(API) 자급화, △ IT/ITES 산업의 고숙련 인력 양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주요 과제로 부상
- ESG 경영, 노동권, 위생·검역 등 선진국 수준의 글로벌 기준 준수가 사실상의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졸업 이후에도 EU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GSP+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와 공급망 인프라 확충 등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 정책 우선순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 한편 고물가, 고부채 등 취약한 거시경제 여건과 더불어, 신정부의 행정 구조 개편 과정에서 정책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향후 구조개혁 추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2026년 2월 중앙은행 총재 임명 등 주요 기관의 인사 개편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부처 간 정책 조정 및 집행이 지연될 경우 구조개혁 추진 동력이 약화될 우려<sup>45)</sup>

■ WTO 차원의 졸업 유예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국은 선제적으로 EPA를 통해 관세 혜택과 투자 보호를 제도화함으로써 방글라데시 내 우리 기업의 입지를 강화해야 함.

- 2024년 11월 개시된 한-방글라데시 EPA 협상<sup>46)</sup>이 방글라데시의 산업 다변화와 한국의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에 연결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협상을 가속할 필요가 있음.

44) The Daily Star(2026. 2. 20.), “LDC graduation: Government asks UN for three-year deferment”(검색일: 2026. 3. 9.).

45) S&P Connect(2026. 3. 5.), “Bangladesh government’s administrative restructuring likely to delay policy execution in six-month outlook”(검색일: 2026. 3. 9.).

46) 양국은 2024년 11월 E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뿐 아니라 투자, 인프라, 공급망 협력을 포괄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함.

- 기존 섬유·의류 중심의 교역 구조(원료 수출 - 완제품 수입)를 넘어, 전자·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의 현지 부품 공급망을 강화하고 ICT 인프라, 제약, 친환경 선박, 기후변화 대응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
- 방글라데시의 산업 다변화를 지원함으로써 한국산 기계류 및 중간재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방글라데시를 공급망 핵심 파트너로 활용

■ 방글라데시의 LDC 졸업 준비 과정과 연계하여 ODA 및 지식공유사업(KSP)을 활용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민간 투자 확대의 기반을 조성해야 함.

- 방글라데시는 한국의 최대 ODA 수혜국<sup>47)</sup>으로서, 교역·투자·ODA를 연계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동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
  - [비관세 장벽 대응] 한국의 관세 행정, 표준·인증,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를 전수하여 현지 기업의 TRIPS 및 선진국 수준의 검역 기준 충족을 지원하고, 한국형 표준 채택을 유도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장벽을 완화
  - [GSP+ 지위 획득 지원] 방글라데시의 EU GSP+ 요건(노동, 인권, 환경 등 27개 국제협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안전, 노동환경 모니터링, 에너지 효율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기업이 참여한 공급망의 안정성을 제고하며,<sup>48)</sup> 중장기적으로 FTA 협상 역량을 지원
  - [디지털 인프라 협력] 인터넷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현지 디지털 경쟁력 제고와 연계한 상호 호혜적 협력 기반 구축
- 아울러 2026년 9월 UN 총회에서 예정된 LDC 졸업 연기 승인 여부는 현지 진출 기업의 투자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 및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졸업 전후의 거시경제 변동성과 규제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진출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 **KIEP**

47) 한국 유·무상 ODA 전체 통합 1위 수혜국(2020~24년 누적 기준). ODA Korea 홈페이지(<https://odakorea.go.kr/statistic/main#/statSearch>, 검색일: 2026. 4. 1.).

48) LDC 졸업국은 전환기간 종료 후 자동으로 표준 GSP 수혜국으로 편입됨. GSP+는 별도의 신청 및 평가 절차가 필요하며 30여 개의 국제협약 비준 이행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WTO(2022), "Trade impacts of LDC graduation: Cambodia," p. 4.

## 부록

### 부록 글상자 1. 방글라데시 LDC 졸업 요건 달성 현황

▷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CDP는 3년마다 LDC 범주를 검토하며, 3개 기준 중 2개 이상을 두 차례 연속 평가에서 충족 시, 또는 1인당 GNI가 졸업 기준의 두 배 이상을 두 차례 연속 달성 시 졸업 권고 대상 국으로 선정

▷ 방글라데시는 2018년과 2021년, CDP의 3년 주기 평가(Triennial Review)에서 ① 1인당 국민총소득(GNI), ② 인적자산지수(HAI: Human Asset Index), ③ 경제·환경 취약성지수(EVI: Economic & Environmental Vulnerability Index) 등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연속 통과

▷ 방글라데시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 졸업 권고를 받은 최초의 국가이며, 지금까지 LDC 지위를 졸업한 국가는 총 8개국

**방글라데시 LDC 졸업 요건**

항목	2018		2021	
	기준	2018년	기준	방글라데시
① 1인당 GNI	\$1,230 이상	\$1,274	\$1,222 이상	\$1,827
② HAI*	66점 이상	73.2	66점 이상	75.4
③ EVI**	32점 이하	25.2	32점 이하	27.0

주: ① 직전 3년 평균 기준(ATLAS 방식 계산), ②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산모 사망률, 발육 부진율, 중등교육 등록률, 성인 문해율, 중등교육 성평등 지수, ③ 경제 - 농업·농림업 비율, 고립성·내륙성, 수출집중도, 수출 불안정성, 환경 - 해안가 거주인구, 건조지역 거주인구, 농업 불안정성, 자연재해 피해 인구  
자료: 방글라데시 대외경제협력청(ERD) SSGP 홈페이지(검색일: 2026. 2. 24.).

자료: Permanent Mission of Bangladesh to the UN 홈페이지(<https://nypm.mofa.gov.bd/pages/static-pages/695266a635ce18e1c05aa903>), Support to Sustainable Graduation Project 홈페이지(<https://ssgp.erd.gov.bd/sustainable-graduation>)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부록 표 1. 방글라데시 WTO 의견서(Position Paper)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관련 산업
12년 유예	• MC13의 '3년 권고'가 산업구조 전환 지원에 불충분 • 12년의 구속력 있는 유예를 통해 실질적인 산업 고도화 시간 확보	-
DFQF	• 졸업 후 주요국(EU, 영국 등) 시장 내 무관세·무쿼터(DFQF) 지위 최소 12년 보장	RMG
TRIPS	• LDC 전용 의약품 특허 면제 혜택을 최소 2034년까지 연장	제약
S&DT	• LDC 전용 특별차별대우(S&DT) 조항 12년간 연장 • 수출 장려 현금 보조금 단계적 폐지 시간 확보	-
RoO	• 원산지 규정 협상 시 단일 변형(single-stage transformation) 허용 요구*	RMG
유예 이행	• 선진 교역국(EU, 영국, 중국, 일본 등)의 MC13 결정(졸업 후 3년 유예 조치) 성실 이행 촉구 • EU GSP+ 지위 확보	-
어민 보호	• 남획 자원(overfished stocks) 관련 보조금 7~10년간 유지	수산업
식량 안보	• 정부의 관리가격 식량 매입·비축이 WTO 보조금 상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영구적 해결책(permanent solution) 확보 • 위기 시 LDC 대상 식량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한 예외 규정 요구	농업
전자상거래	• 모라토리엄(전자전송** 무관세) 임시 연장 • 디지털 서비스 수입에 대한 VAT/GST 과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계획(work programme) 요구	IT

주: \* 원사 수입 의존 보호.

\*\*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광고, OTT 등.

자료: The Financial Express(2026 1. 31.), Apparel Resources(2025. 1. 31.)(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6. 2. 11.).